

한국사 2010년 지방직 한국사 C책형 해설

1.정답 3

고려시대는 양안과 호적을 호부에서 작성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1번은 당이 아니라 송이며, 윤작법은 고려 전기에 시작은 되지만 고려 후기에 일반화되었고, 수은, 향료, 산호는 아라비아의 수입품이다.

2.정답 4.

고려시대 모든 노비가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거노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3.정답 4

제시문은 1922년 발표된 2차 조선 교육령이다. 1번은 1910년대, 2번은 1940년대 초반, 3번은 1930년대 전반이다. 2차 조선교육령은 3.1운동 이후 격화된 한국민의 반발을 회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4.정답 3

일제강점기 농민 운동은 초기에는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소작권이전 반대와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1927년 조선농민총동맹이 조직되면서 자작농까지 포함하는 농민조합으로 발전해 갔다. (ㄹ)의 1940년대이후 자작농까지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발전하였다는 1920년대 후반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5.정답 1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주장하였다. 김구와 이승만 등의 우익은 반탁을 조선공산당 등의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이었으나 이후 찬탁운동을 전개하였다.

6.정답 2

상정고금예문은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서 1234년에 인쇄된 것으로 기록되어진다. 이시기는 무신 집권기이므로 가장 가까운 시기의 사건을 고른다면 2번의 삼별초의 저항이다. 1은 고려 초기 광종, 3은 원간섭기 충선왕, 4은 고려 말의 상황이다.

7.정답 2

보기의 제시문은 사비천도, 신라의 공복제정, 수의 통일은 6세기의 상황이다. 이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책은 신라 진흥왕때의 국사라고 할 수 있다. 1은 고구려 초기로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3은 백제 4세기 근초고왕, 4은 최치원의 책으로 최치원은 9세기 후반의 인물이다.

8.정답 3

보기의 연설문은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박성춘의 연설문이다. 1은 1884년 갑신정변, 2은 위정척사운동과 가깝고 4은 1882년 임오군란이다. 3의 현의 6조를 올려 고종에서 약속을 받았던 것이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때의 사건이다.

9.정답 4

‘삼국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시기’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는 내용 문제인 듯 보이지만 결국 시기를 묻는 문제이다. 정전은 신라 통일 이후 성덕왕때 (722)년의 내용이다.

10. 정답 1

제시문은 의상에 대한 설명이며 의상은 진골 출신으로 진골 김한신의 아들이며 화엄종과 원융사상을 설파하였고, 부석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2의 화쟁사상은 원효, 3의 아미타 사상을 보급해 불교의 대중화는 원효라고 볼수 있으며 4은 원측이다.

11. 정답 1

역사서술의 두 경향에 대한 설명이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과 평가가 개입될 수 있으며 사실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과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실증적 역사 연구로서 과거 존재하였던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한다.

12.정답 3

선사시대의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로서 탄화된 좁쌀, 조개껍데기 가면, 뼈바늘 등은 신석기 유물이며 단양 수양개에서 나온 물고기 조각 등 선각화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13.정답 2

홍경래의 난은 서북지방의 차별대우와 가혹한 수취가 발단이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조선 초기부터 고려시대의 중심지로 낙인 받아 관직진출이 어려웠다. 대신 조선 후기에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성장한 상인, 광산 경영인 등이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조선 후기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지역의 상인들과 광산 경영인들을 탄압하면서 특정 상인들과 결탁하여 이지역의 상인과 수공업자, 광산경영인들을 차별하였다. 이것도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홍경래의 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지는 않았다.

14. 정답 2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사건을 묻는 문제로서 (ㄱ)은 선조는 임란 이후에 사망한다. 1609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였다. (ㄴ)은 서인 정권은 광해군의 대외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면배금의 정책으로 호란의 발단 원인을 제공하였다.

15.정답 4

임란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1은 영정법만을 생각하면 헤갈리 수 있으나 다행히 4번 현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세조)의 지문이 있어서 그다지 답을 고르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1은 조선 중기이후 영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결당 6-4두의 최저 세율로 조세를 거두었다. 이후 인조때 영정법에서 1결당 4두로 고정되었다.

16.정답 2

4.19 혁명 이후 3차 개헌이 이루어져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의회의 2공화국이 출범하였고 2

공화국에서 1공화국 때의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4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시기 진보세력과 학생들은 활발하게 통일 논의를 벌였다. 2번의 반민법 제정은 1948.9월로 1공화국 때의 사건이다.

17.정답 1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로서 1번의 농가집성은 효종때 신숙이 편찬한 농서이다. 조선 중기나 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 전기의 농서는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등이 있다.

18.정답 3

마립간 대신 왕의 칭호를 쓴 왕은 신라의 지증왕이다. 1번의 병부는 법흥왕, 2번의 국학은 신문왕, 4번의 대가야 정벌은 진흥왕이다.

19. 정답 3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상학파의 주장으로 결국 조선후기의 상황을 묻는 문제이다. 조선후기에는 이익과 정약용과 같은 중농학파들은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있었고, 또한 조선후기에는 미륵사상이나 정감록 등이 유행하였다. 또한 문화에서는 풍속화, 한글 소설, 판소리와 같은 서민문화가 유행하였다.

교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이후 정부가 개혁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이다.

20. 정답 1

조선시대 예술에 대한 문제로서 조선시대는 고려와 달리 화려한 자기가 아닌 백자등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생활용품과 문방구 등에서 실용적이고 소박한 문화가 발달하였다.

2번의 분청사기는 조선초기에 유행하였고 조선후기에는 백자가 유행하였다. 3번의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대조적으로 사원건축이 발달하였다는 잘못되었고 오히려 유교와 관련된 서원이 유행하였다. 양반들은 서예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체가 발달하였다.